월정사 만월봉사단 출범…시민보살행 구현

3월 12일 대법륜전서 출범식
지역 중장년 40여 명 뜻 모아
매월 소외계층 위한 봉사 진행
정념스님 "구세대비 원력 실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월정사는 3월 12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만월봉사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명상치유문화의 성지 오대산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가 시민보살행을 구현하기 위한 봉사단을 출범했다.

월정사는 3월 12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평창군 지역의 공익활동을 위한 만월봉사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만월봉사단은 진부면, 봉평면, 대관령면 등 평창군에 거주는 40~50대 중장년층 40여 명이 뜻을 모아 구성됐다. 회원들은 지역 기관 및 단체에서 수 년 이상 봉사를 꾸준히 해온 베테랑들이다. 초대 만월봉사단장에는 박재민 월정사 대외협력 특보가 부회장에는 박효신 월정사 연꽃합창단장이 맡았다.

만월봉사단 출범은 월정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화엄선 시민보살행'의 기치에 맞닿는다. '화엄선'은 모든 것이 나와 연결돼 있음을 아는 인식 전환을 통해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님을 알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갖는 긍정의 패러다임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체 만물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시민보살행'이다.

실제 월정사는 '화엄선 시민보살행' 실천을 위해서 평창군 백미 5t 지원·장평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성금기탁·평창군 장학금 기탁 등 각종 지원사업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코리아 미래포럼 개최, 청춘별빛명상 템플스테이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구세대비 원력의 실천을 강조했다. 퇴우 정념 스님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구세대비에 있다. 혼자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봉사하면 더 큰 일도 가치 있게 할 수 있다"며 "봉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복을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 세상이 곧 '복전(福田)'"임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우선으로 한 만월봉사단 출범을 뜻깊게 생각하며 천개의 손길로 세상을 보듬어 구세대비 원력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퇴우 정념 스님은 만월봉사단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스님은 "만월봉사단이 우리 지역 최고의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월정사도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따뜻하고 넉넉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 만월봉사단의 다양하고 선도적인 봉사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만월봉사단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월정사의 수행가풍에 따라 지역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보살행' 실천을 다짐했다.

봉사단원들은 "세계는 나와 너, 몸과 마음, 이기심과 이타심, 자연과 문명으로 분별되어 있지 않으며 상대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로 연기되어 있음을 성찰하고 '나를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시민보살의 본분사임을 자각한 화엄행자로서 보현행원을 서원한다"면서 "우리 봉사단원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수행에 정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소중한 인연을 나누고 '생명평화'를 위해 신도회와 이웃종교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미래세대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서원했다.

향후 만월봉사단은 매월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외계층 반찬나눔 △공공기관(물품나누기) 자원봉사 △이·미용 봉사 △긴급재난구호 등을 평창군과 진부면과 긴밀히 협력·수행할 계획이다.

정읍 보림사, 재가불자 명상강좌 개설

입보리행론 교재…매주 목·일 강의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가 재가불자들의 수행실천을 돕기 위한 명상 강좌를 개설했다.〈사진〉

이번 강좌는 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입보리행론'을 기본 교재로 활용해 진행되며, 불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명상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월 9일 첫 강의를 시작한 보림사 명상강좌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열린다. 명상강좌에는 30여 명의 일반인들과 불자들이 수강신청했다.

보림사는 목요일 강좌는 정읍 지역의 재가불자들이 참가하고 일요일 강좌는 직장인들과 전주, 광주 등 멀리서 오는 수강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수강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은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면의 지혜를 키우는 과정"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불자들이 명상의 가치를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담 진성 대선사 열반 17주기 다례재

수덕사 3월 10일 봉행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3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원담당 진성 대선사 열반 17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추모법문을 통해 "오늘 원담 대종사의 열반을 맞아 대종사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불교의 정체성, 선사들의 정체성과 사상과 정신을 되새기자"며 "우리의 정체성은 해탈법"이라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백양사 고불매 담긴 禪香 느껴보세요

'고불매 禪·梅·香' 축제, 3월 29~30일 개최

선명상 사찰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돼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백양사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고불매(古佛梅· 사진)를 배경으로 한 '2025 백양사 고불매 선·매·향(禪·梅·香)' 축제를 오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당초 3월 22~23일로 예정됐으나, 기상 이상으로 인해 고불매의 개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주 연기됐다. 백양사 측은 "방문객들이 만개한 고불매의 정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양사가 주최하고 장성군청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백양사의 상징인 고불매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선(禪) 명상이 결합된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이 이끄는 선(禪) 명상 수행을 비롯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식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체험이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백양사 탐방 스탬프 투어, 백양사 설립 설화 체험, 전통차 시음, 힐링 음악과 함께하는 선명상, 사진 및 영상 전시회, 셀카 공모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고불매는 오랜 세월 백양사의 정신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축제가 자연과 선(禪)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와 관련한 정보는 백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터뷰 – 김해 불인사 송산 스님

"청소년 명상으로 지역 전법 선도"

하트스마일명상 등 보급
대중화된 불교수행 강조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가 청소년 포교와 명상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실천하는데 나섰다. 김해 불인사는 4월 6일 '만남, 화합, 토크 콘서트'를 통해 청소년 명상을 통한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지 송산 스님〈사진〉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불교 수행의 본질이 마음공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표현 방식과 소통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포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인사는 2023년 김해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출범해 청소년들에게 불교적 가치와 인성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행 대중화를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 초대석'을 운영하며, 불자 연예인을 초청해 힐링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배우 강부자 씨가 '나의 인생, 나의 부처님'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많은 불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현대인들에게 보다 쉬운 불교 수행을 전하기 위해 '하트 스마일 명상'을 도입해 내면을 돌아보는 수행법을 전파 중이다.

송산 스님은 "'하트 스마일 명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미소를 짓고 마음을 맑게 가꾸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쌍계사 중창주 고산 대선사 4주기 다례재

3월 10일 경내 일원서 봉행



하동 쌍계사(주지 지현스님)는 3월 10일 영모전, 부도전, 팔영루에서 중창주 고산대선사 열반 4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고산문도 문장 겸 회주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도량 정비 계획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주문과 방장실 정비 작업도 추진될 예정"이라며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문도를 위한 안정적인 수행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신도회 윤건우 신도회장 취임식

3월 7일 울산시티컨벤션서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제28대 윤건우 회장 취임식을 3월 7일 울산시티컨벤션 1층에서 진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 등 지역스님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진용 BBS울산불교방송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마이산 탑사 '자비의 쌀' 전달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와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3월 11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요섭)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비의 쌀' 1000kg(10kg, 100포대)을 전달했다.〈사진〉

이번에 전달된 쌀은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미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진안군 11개 읍면의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자비의 쌀은 정초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 부처님전에 공양 올린 쌀"이라며 "공양미를 이웃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산포교당 정법사 영축불교대학 입학식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3월 8일 만불보전 2층에서 영축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주지 광우 스님은 치사에서 "불교를 배우게 된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삶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231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며, 과정별 접수 현황은 △교양 과정 56명(주간 31명, 야간 25명) △전공 과정 47명(주간 24명, 야간 23명) △경전 과정 128명(주간 55명, 야간 30명, 금요일반 43명)으로 집계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찰하는 신행생활을" 전북불교대학 입학식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3월 9일 큰법당에서 불교학과 제38기, 법사과 제3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에서는 불교학과 65명, 법사과 17명 등 총 82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학인의 길을 걷게 됐다.

이창구 학장은 입학사를 통해 "우리 대학은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문학적 지혜가 결합된 살아있는 불교를 추구한다"며 "왜 불교를 믿으며,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성찰하는 신행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무등산 원효사 공양미 북구청 기탁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청 스님)는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소운 스님)를 통해 3월 10일 광주 북구청(청장 문인)에 자비의 쌀 2000kg(약 572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사진〉

이 쌀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전해질 예정이다.

해청 스님은 "매년 신도들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미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도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도광사 정초 방생법회



천안 도광사(주지 탄문 스님)는 3월 9일 강원도 양양의 휴휴암 경내 바다법당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낙산사 성지순례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법회 및 순례에는 100여 불자들이 참석해 불살생이라는 소극적인 계율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생명을 직접 구제하는 적극적 보살행을 다짐했다.

주지 탄문 스님은 "방생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이라며 "오늘 방생법회와 성지순례를 통해 수행의 원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